

협회소식/업계동정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 10월9일까지 작품모집

韓國乳加工協會(회장 全應璿)는 전국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 작품을 10월 9일까지 모집한다.

글의 소재는 우유 및 유제품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로 원고지 10매내외이며 접수처는 서울서초구 방배3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협회는 이번엔 접수된 작품을 새싹회에 심사(심사위원장 尹石重회장)를 의뢰, 최우수상 1명에게는 농림수산부 장관 상장과 장학금 20만 원을 수여한다.

또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에게는 각각 한국유가공협회장 상장과 장학금 15만원, 10만원, 5만원씩을, 장려상 50명에게는 협회장상장과 부상을 지급한다.

해태, 전무에 吳石圭씨 선임 정관개정 병과사업등 추가

해태유업·주는 지난 8월27일 주총을 열고 전무이사 吳石圭, 이사 金鍾敏 감사 朴胥鏞씨등 3명을 새로 선임했다.

해태유업은 또 다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사업을 현정관에서 삭제하고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의 제조판매업 ▲외식사업 ▲면류·라면류 및 빵류의 제조 가공판매 ▲사료 수입·제

조판매 ▲컴퓨터주변기기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사업등을 정관에 새로 추가했다.

남양유업, 모유와 비슷한 저분자분유 '임페리얼' 시판

남양유업(대표 洪源植)은 최근 저분자 분유인 '임페리얼'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우유 유청 단백질의 절반을 차지하는 β-락토글로부린을 모유와 같은 저분자 상태로 만들어 분유를 먹는 유아들에게 일어나는 설사와 구토 등 알레르기 증세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1단계(4백g)와 2단계(3백75g)로 개발된 '임페리얼'의 소비자 권장가격은 모두 4천8백원이다.

원유검사보조원교육 실시

한국유가공협회는 9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서울서초동 축산회

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원유 검사보조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원유검사보조원으로서 갖춰야 할 축산물 법규해설, 우유의 검사요령등 이론과 관능검사 신선도검사등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했는데 1백23명이 수강했다.

남양, 피자토스트치즈 출시

남양유업(대표 洪源植)은 최근 독일식 고급치즈 '로젠하임'에 이어 짧은 시간에 정통피자의 풍미를 즐길수 있는 '로젠하임피자토스트치즈'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피자토스트치즈는 피자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방부제, 무색소, 무조미료의 독일식 공법으로 제조해 마음놓고 먹을수 있는 영양간식으로 오븐이나 그릴에서 장시간 걸려서 만드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5매들이가 1천2백원, 10매들이가 2천3백원이다.

연세유업, 유가공사업소통합 사업본부장에 李範錫씨 선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전액 출자한 주·연세유업(대표이사 이우주)은 최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던 연세유가공사업을 흡수통합,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사업본부장에 李範錫소장을 선임하는등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공장 劉實培 ▲관리부 기획과장 張元植 관리과장 金相虎 구매과장

李學金 낙농과장 金璫會 ▲영업부 판매과장 金宇燮 ▲생산부 생산과장 南基完 품질관리과장 金善珩 공무과장 金慶鎬.

서울 '피자슬라이스치즈' 시판

서울우유조합은 최근 피자슬라이스 치즈를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서울우유는 식빵이나 어떤 치즈 요리에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알맞은 두께와 크기로 만든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권장가격은 5장입 1천2백원, 10장입 2천3백원이다.

매일유업, 임산부용 우유 '매일마터밀크' 개발시판

매일유업·주(대표 朴熺柱)는 최근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꼭 필요한 철분, 칼슘, 비타민D·E, 엽산등을 강화한 영양우유 '매일 마터밀크'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매일 마터밀크는 철분이 일반우유의 5배, 칼슘은 1.2배 강화시켰으며

비타민D·E 또한 강화시켜 1일 권장량의 25%를 충족할 수 있어 임신기의 엄마와 태아의 영양균형을 유지하고 출산후 산모의 신속한 건강회복을 돕는 임산부전용우유이다. 매일유업측은 특히 이 제품에는 뇌와 척수의 신경전달기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엽산을 강화시켜 임산부를 통해 태어날 태아의 뇌신경질환(기형아 등)을 예방할수 있는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2백35ml 한팩에 5백원.

서울우유 趙光鉉조합장 취임

趙光鉉 신임서울우유협동조합장은 9월28일 조합4층 강당에서 조합원, 조합직원등이 참



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4년의 제2대 직선조합장에 취임했다. 趙조합장은 지난7일 전체조합원 5천8백94명 가운데 76%인 4천5백20명이 투표한 조합장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가운데 59%인 2천6백47표를 얻어 1천8백39표(41%)를 득표한 卞五杰후보를 따돌리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趙조합장은 서울출신으로 서울사대부고와 국민대 경제과를 졸업했으며

며 지난63년부터 경기도 남양주군에서 화도목장(젖소 1백20마리사육)을 경영하고 있다. 趙조합장은 지난 72년2월 서울우유조합 제5대 이사를 역임한후 6~8대까지 이사직을 맡았으며 지난 87년 제14대 감사로 피선된 후 15, 16대 감사직을 역임했다.

서울우유, 아이스크림社 설립

서울우유조합은 아이스크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주)서울우유 아이스크림(대표 黃南錫 서울 마포구 용강동 116-8)을 설립 했다. 5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주)서울우유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의 전문생산과 판매를 맡게 돼 그동안 부진했던 서울우유의 아이스크림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회 미스빙그레 선발대회 참가자 10월18일까지 접수

(주)빙그레는 오는 10월말 '제1회 미스빙그레 선발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13-18세의 여성으로 참가희망자는 오는 10월18일까지 컬러사진 2장(상반신 사진 1장, 전신 사진 1장)과 간략한 자기소개서를 (주)빙그레 마케팅실(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530-12)로 우송하면 된다. (주)빙그레는 선발된 상위입상자들에게는 상금과 부상을 수여하고

우유광장

자사제품의 광고모델로 기용할 계획이다.

해태유업, 칼슘등 영양강화한 어린이용 치즈 ‘밤비노’ 시판

해태유업(대표 閔丙憲)은 최근 칼슘과 DHA, 비타민A·D₃가 강화된 어린이용 치즈 ‘밤비노’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탈리아어로 어린이란 뜻의 ‘밤비노’는 어린이 입맛에 맞게 저염분·무색소·무방부제 처리한 것이 특징.

권장소비자 가격은 5장입 1천2백원, 10장입 2천3백원이다.

‘건국유업’으로 명칭변경키로

건국대 우유처리장은 금명간 명칭을 「건국유업」으로 변경키로 했다.

건국대 유처리장은 기존의 명칭이 시대적인 감각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명칭을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명칭 변경 승인을 요청, 승인이 나는대로

바뀌 사용키로 했다.

·연세유업, 아산공장 준공

연세유업·주는 지난 6월30일 아산군음봉면산동리 현지에서 아산유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아산공장은 대지 1만8천평에 1만1천6백여㎡의 건물을 신축, 하루 3백여톤의 시유가공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우유를 비롯 두유,

요구르트등을 생산하게 된다.

제일제당, ‘하이칼스’ 출시

제일제당은 최근 기존의 ‘칼피스’를 개선한 발효유 음료 ‘백설 하이칼스’를 출시하고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들어갔다.

‘백설 하이칼스’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생성된 농축발효유를 순간 살균한뒤 희석, 캔에 담아 유산균이 살아있는 기존 요구르트(유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牛乳”誌는 유가공관련 종사에게는 情報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가공 종합정보지입니다.

牛乳誌는 열린 잡지이며 독자 여러분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의 내용이나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牛乳편집실

우유광장

통기한 7일)와는 달리 장기간(2년) 보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제일제당은 최근 소비자들이 건강 지향적 음료제품들을 선호하고 탄산 음료를 기피함에 따라 기존 우유탄산음료와 차별화를 시도, 무자극성의 무탄산 알칼리성 음료인 '백설 하이칼스'를 '게토레이'에 버금가는 주력상품으로 키우고 품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음료부문 사업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격은 2백50ml 한 캔에 5백원이다.

두산종합식품, 사무실이전 연지동 연강빌딩 9층으로

두산종합식품·주(대표 安基瑩)은 지난8월28일 본사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연지동270 연강빌딩9층으로 이전했다.

대표전화 708-5600
FAX 747-2790~1

는 오히려 등외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감안,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균수를 기준(유지방율 3.4%)으로 등외는 4급(기준가격)과 같은 kg당 3백94원을 적용했으나 9월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기준가격보다 11원이 적은 3백83원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체세포수의 등외등급에 대한 차등가격적용은 2개월간 유보되면서 등외관정을 받더라도 지금과 같이 4급과 같은 kg당 3백94원을 적용하게 된다.

또 세균수와 체세포수가 모두 등외를 받게 되더라도 기준가격에서 11원만 공제하게 된다.

체세포란 세균수와는 별개로 젖소의 유방내부의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온 것이며 유방염에 걸릴 경우 백

종합소식

원유 차등가격제 일부 변경 체세포 등외적용 2개월연장

농가생산 우유(原乳)에 대한 차등 가격제도가 9월1일부터 일부 변경시행됐다.

농림수산부는 8월31일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적용키로 했던 원유위생검사 결과 등외 판정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 유보조치 중 세균수에 대한 유보는 해제하되 체세포수에 대한 유보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유의 위생등

급별 차등가격제를 중간점검한 결과, 세균수는 최우수등급인 1급이 증가하고 등외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유질개선효과가 나타났으나 체세포수

◆ 원유위생등급별 차등가격제 시행이후 원유위생동향 (단위 : %)

세균수	1급	2급	3급	4급	등외	체세포수등외
6월상순	21.2	18.0	16.6	19.0	25.2	13.7
6월하순	24.7	19.3	17.6	18.4	20.0	13.1
7월상순	28.3	21.2	17.3	16.9	16.3	15.2
7월하순	32.8	21.7	17.5	14.9	13.1	15.7

* 낙농가수의 등급별 분포상황임

◆ 원유 위생등급별 차등가격 내용

세균수	1급	2급	3급	4급	등외	체세포수등외
	433원/kg	410	402	394	383	세균기준등급에서 11원감액

* 유지방률 3.4%기준

※ 세균수 등외와 체세포수 등외가 중복될 때는 3백83원 적용

혈구 때문에 체세포수가 많아진다.

체세포수의 감소(유방염의 방제)를 위해서는 착유기 점검 및 소독, 유방 및 우사내의 소독철저, 정기적인 유방검진, 유방염 감염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파스퇴르 광고 불공정행위” 서울고법, 시정취소 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安文泰 부장판사)는 8월9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파스퇴르社의 불공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社의 광고는 자사제품의 우수성과 장점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自社우유의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면서 기존우유를 비방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스퇴르社의 광고에는 기존우유의 고온살균 처리는 열처리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알부민, 단백질 등 영양소의 파괴가 필연적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고온처리를 하더라도 알부민 단백질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백질로 변성되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소화흡수는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파스퇴르社가

제출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기존우유가 원고 회사의 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파스퇴르社는 지난 88년 5월부터 4개월간 주요일간지에 저온살균법으로 처리된 自社의 우유가 타사제품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광고를 실었다가 90년 11월 공정거래위로부터 광고중지 및 사과광고 게재명령을 받아 시정명령취소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을 냈었다.

학교급식 우유가격 인상조정 9월부터 2백ml 1백60원으로

9월1일부터 학교급식 우유가격이 1백60원으로 올랐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7월24일 교육부와 학교급식우유 공급가격에 대한 협의를 갖고 9월1일부터 2백ml짜리 급식우유 공급가격을 종전의 1백50원에서 1백6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급식우유 가격의 조정은 시유 공장도가격이 지난 6월부터 평균 6% 인상된데다 세균수에 따른 집유가격을 달리하는 원유차등가격제가 시행돼 원유가격이

오른데 따른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당국이 조정한 급식가격은 공장도 가격에 불과해 유가공업계가 최소한의 유통비용을 포함한 당초의 인상요구한 1백75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급식물량을 늘릴수록 대리점에 유통비용을 보전해 줘야하는 유업계는 적자가 늘어나게 돼 학교급식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파스퇴르 허위비방광고 남양유업, 2심서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金鍾培 부장판사)는 지난 7월2일 남양유업(주)이 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낸 허위비방광고 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파스퇴르는 남양에 대해 1심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 5천2백만원이외에 추가로 3억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는 남양측이 비식용분유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분유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와 외국법령상 사용금지된 원료 또는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여 조제분유를 제조하고 있는 취지의 광고를 내 남양측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스퇴르는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또는 TV로 방송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파스퇴

르가 이를 위반할 때는 남양측에 광고 1건에 대해 1심 판결때와 같이 7천만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파스퇴르측이 남양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林完圭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남양측이 생산한 우유제품이 비식용화합물이 들어 있다는 파스퇴

르의 광고는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파스퇴르는 남양에 대해 5천만원을 지급하고 또 다시 허위광고를 할 경우 건당 7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남양유업은 지난 90년11월 파스퇴르측이 일간지에 “남양은 비식용화학첨가제가 들어 있는 우유를 만들고 있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내자 서울민

사지법에 허위, 비방광고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어 같은해 12월29일 법원이 광고금지처분을 내리자 남양은 지난 91년 1월 파스퇴르의 허위, 비방광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심대한 타격과 손해를 입었다며 파스퇴르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허위, 비방광고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출했었다.

